

연구 노트

##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전 창 곤\*

1. 머리말
2. 일본 감귤의 수급동향
3.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4. 일본의 감귤유통
5. 일본의 감귤무역
6. 국내 감귤산업에 대한 시사점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감귤산업은 1970년대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에서 우리나라의 과실류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생산과 소비 및 농가수입 측면에서 사과와 함께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 감귤산업은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반면 감귤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크게 생산·공급 측면, 수요측면, 유통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감귤 공급 측면의 문제점은 현

재 감귤의 공급과잉 구조를 들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 감귤의 평균 생산량은 적정생산량 수준인 약 60만톤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의 수요측면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소비증가율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오렌지수입의 자유화로 감귤수요의 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감귤의 유통측면의 문제점은 감귤 생산자의 조직화가 미흡하여 시장교섭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감귤과 동일한 품종인 일본의 감귤산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과원면적의 증가로 1970년대부터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감귤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 이후 5차례에 걸쳐 밀감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4월 오렌지의 완전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1988년부터 실시한 대대적인 과원면적의 감

\* 부연구위원

소정책으로 오렌지 수입자유화의 충격을 완화시켰다. 그 결과 일본 감귤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일본의 각 감귤 산지마다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중앙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능가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감귤 생산·공급의 과잉구조로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감귤수급 불균형 현상과 1991년도의 오렌지 수입자유화는 현재의 우리나라 감귤산업이 처한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귤수급 불균형 해소와 오렌지 수입자유화에 대처한 일련의 구조조정 정책은 우리나라 감귤산업의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 감귤의 수급동향과 구조조정정책 추진과정, 감귤 유통 등 전반적인 일본 감귤산

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일본 감귤의 수급동향

감귤류는 1996년말 현재 전체 과실 생산량의 약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재배면적의 경우 전체 과실 재배면적의 약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온주밀감은 전체 과실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각각 31%와 2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감귤류 생산량중 온주밀감이 전체 감귤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요깡 8%, 하감 6%, 핫사꾸 5%, 네부루오렌지 2%, 기타 감귤류 5% 순이다. 재배면적은 전체 감귤류중 온주밀감이 6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요깡 10%, 하감 8%, 핫사꾸 6%, 네부루오렌지 2% 순이다(표 1).

표 1 일본 감귤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ha, 천톤, %

| 연도               | 온주밀감              |                   |                  | 기타감귤류 <sup>2</sup> |                 | 전체과수 대비 비중     |                |
|------------------|-------------------|-------------------|------------------|--------------------|-----------------|----------------|----------------|
|                  | 재배면적              | 생산량               | 재배면적             | 결과수면적              | 생산량             | 재배면적           | 생산량            |
| 1970             | 163,000           | 2,552.0           | 30,700           | 137,200            | 358.9           | 46.5           | 53.3           |
| 1975             | 169,400           | 3,665.0           | 33,900           | 166,700            | 589.6           | 47.2           | 63.8           |
| 1980             | 139,600           | 2,892.0           | 45,300           | 135,000            | 703.5           | 45.3           | 58.9           |
| 1985             | 112,500           | 2,491.0           | 49,900           | 106,900            | 710.3           | 41.9           | 56.9           |
| 1990             | 80,800            | 1,653.0           | 42,800           | 74,100             | 559.8           | 35.0           | 46.5           |
| 1991             | 78,300            | 1,579.0           | 41,300           | 71,700             | 486.4           | 35.1           | 48.8           |
| 1993             | 74,800            | 1,490.0           | 39,200           | 68,500             | 423.4           | 34.6           | 44.9           |
| 1995             | 70,500            | 1,378.0           | 37,200           | 65,400             | 383.0           | 34.2           | 43.2           |
| 1996             | 68,000            | 1,153.0           | 36,300           | 63,500             | 398.5           | 33.9           | 41.4           |
| 최고연도<br>(최고치)    | 1973<br>(173,100) | 1975<br>(3,665.0) | 1984<br>(50,100) | 1975<br>(166,700)  | 1983<br>(784.4) | 1975<br>(47.2) | 1975<br>(63.8) |
| 증감률 <sup>1</sup> | -4.0              | -3.0              | -2.7             | -4.6               | -5.8            | -              | -              |

1) 연평균 증감률로서 최고 연도 이후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음.

2) 하감, 핫사꾸, 이요깡, 네부루오렌지, 기타 감귤류를 포함함.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果樹生産出荷統計」, 1997. 2.

일본 밀감의 재배면적은 1960년 63,100ha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73년 173,100ha로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4.0%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1996년 현재 총재배면적은 68,000ha로 196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1973년 재배면적의 39.3%에 불과하다. 온주밀감의 생산량 역시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75년 3,665.0천톤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였으며, 그 후 연평균 3.0%의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1996년말 현재 1,153.0천톤

으로 1975년의 31.5% 수준이다.

일본의 감귤류 재배면적 변화추세를 보면 온주밀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조생온주와 보통온주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조생온주보다 보통온주의 감소율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생온주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것은 일반조생온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극조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하우스밀감의 경우 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2). 기타 감귤류인 만감류의 경우 재배역사가 오래되고 재

표 2 일본 온주밀감의 재배면적 추이

단위: ha

| 연 도  | 조 생 온 주 |           |       |        | 보 통 온 주 | 계      |
|------|---------|-----------|-------|--------|---------|--------|
|      | 일 반 조 생 | 하 우 스 밀 감 | 극 조 생 | 계      |         |        |
| 1990 | -       | 1,197     | -     | 37,300 | 36,900  | 74,100 |
| 1991 | 28,360  | 1,340     | 7,000 | 36,700 | 35,000  | 71,700 |
| 1992 | 27,230  | 1,410     | 7,460 | 36,100 | 33,200  | 69,300 |
| 1993 | 26,910  | 1,430     | 7,860 | 36,200 | 32,400  | 68,500 |
| 1994 | 26,090  | 1,410     | 8,200 | 35,700 | 31,200  | 67,000 |
| 1995 | 25,410  | 1,380     | 8,510 | 35,300 | 30,000  | 65,400 |
| 1996 | 24,670  | 1,360     | 8,670 | 34,700 | 28,800  | 63,500 |

주: 재배면적은 결과수 면적임.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果樹生産出荷統計」, 1997. 2.

표 3 일본의 감귤류 재배면적 추이

단위: ha

| 연 도  | 온 주 밀 감 | 기 타 감 귤 류 |       |        |             |                  | 계      |
|------|---------|-----------|-------|--------|-------------|------------------|--------|
|      |         | 하 감       | 햇 사 꾸 | 이 요 깡  | 네 브 루 오 렌 지 | 기 타 <sup>1</sup> |        |
| 1960 | 63,100  | 10,100    | -     | -      | 638         | 4,690            | 15,428 |
| 1970 | 163,000 | 18,100    | 4,860 | 1,130  | 797         | 5,810            | 30,697 |
| 1975 | 169,400 | 16,300    | 6,960 | 2,120  | 1,110       | 7,420            | 33,910 |
| 1980 | 139,600 | 15,600    | 9,420 | 7,670  | 3,800       | 8,810            | 45,300 |
| 1985 | 112,500 | 12,800    | 9,680 | 11,700 | 5,020       | 10,700           | 49,900 |
| 1990 | 80,800  | 8,190     | 6,300 | 12,400 | 3,790       | 12,100           | 42,780 |
| 1995 | 70,500  | 5,760     | 4,420 | 10,800 | 2,340       | 13,900           | 37,220 |
| 1996 | 68,000  | 5,400     | 4,180 | 10,400 | 2,100       | 14,200           | 36,280 |

1) 기타의 경우 1970년 이전에는 햇사꾸와 이요깡이 포함됨.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果樹生産出荷統計」, 1997. 2.

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감, 핫사꾸, 이요강, 네브루오렌지 등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잡감류의 경우 재배면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3).

일본에서 재배·생산되는 감귤류는 대부분 온주밀감으로써 주산지는 에히메(愛媛)현, 와카야마(和歌山)현, 시즈오카(靜岡)현, 구마모토(熊本)현, 사가(佐賀)현, 나가사키(長崎)현 등이며, 이들 6개 현의 온주밀감 총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95년말 현재 각각 전체의 62.0%와 64.5%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온주밀감의 생산량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생산량은 1975년에 3,665.0천톤으로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그후 1975년부터 밀감과원의 전환 및 폐원을 중심으로한 밀감산업의 구조조정정책 실시로 밀감의 생산량과 과원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특히 1988년 6월 미·일 농산물교섭의 최종합의로 1991년 4월 오렌지의 수입

할당제가 철폐되고 수입자유화가 되기까지의 3년간에 걸쳐 약 4만 ha의 과원전환이 실시되었다.

1975년 이후 밀감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밀감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몇차례의 구조조정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밀감수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생식용, 수출용, 가공용 등이 모두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5). 특히 생식용의 감소추세는 단계적인 과실수입의 자유화에 따라 수입과실에 의한 밀감수요의 대체, 식생활 패턴의 간편화·서구화, 핵가족화의 영향 등으로 젊은층 및 가정 공동소비의 생과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감의 1인당 연간 구입량을 보면 1973년 23.1kg을 최고수준으로 그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과실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국내 생산과실인 대부분의 과실

표 4 주산지별 일본감귤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성비, 1995

단위: %(천ha, 천톤)

| 지역  | 재 배 면 적         |                 |                 |                 | 생 산 량            |                  |                   |                  |
|-----|-----------------|-----------------|-----------------|-----------------|------------------|------------------|-------------------|------------------|
|     | 온 주 밀 감         |                 |                 | 기 타<br>감귤류      | 온 주 밀 감          |                  |                   | 기 타<br>감귤류       |
|     | 조생              | 보통              | 계               |                 | 조생               | 보통               | 계                 |                  |
| 靜岡  | 6.0             | 16.0            | 10.6            | 5.0             | 5.4              | 15.3             | 9.6               | 3.3              |
| 和歌山 | 13.0            | 12.6            | 12.8            | 13.0            | 11.0             | 11.1             | 11.0              | 15.8             |
| 愛媛  | 14.2            | 14.7            | 14.4            | 42.7            | 15.4             | 16.9             | 16.0              | 43.3             |
| 佐賀  | 10.2            | 4.6             | 7.6             | 2.7             | 11.5             | 5.8              | 9.1               | 2.2              |
| 長崎  | 7.5             | 7.5             | 7.5             | 2.0             | 8.6              | 9.8              | 9.1               | 1.3              |
| 熊本  | 10.3            | 7.8             | 9.1             | 8.0             | 11.2             | 7.5              | 9.7               | 11.2             |
| 計   | 61.2            | 63.2            | 62.0            | 73.4            | 63.1             | 66.4             | 64.5              | 77.1             |
| 全 國 | 100.0<br>(35.3) | 100.0<br>(30.0) | 100.0<br>(65.4) | 100.0<br>(22.8) | 100.0<br>(801.9) | 100.0<br>(575.8) | 100.0<br>(1378.0) | 100.0<br>(383.3) |

\* 기타감귤류에는 하감, 핫사꾸, 이요강, 네브루오렌지이며, ( )는 결과수 면적과 생산량임.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果樹生産出荷統計」, 1997. 2.

표 5 감귤의 수급동향

단위: 천톤(%)

| 연 도  | 생 산 량         | 소 비 량        |            |            |
|------|---------------|--------------|------------|------------|
|      |               | 생 식 용        | 수 출 용      | 가 공 용      |
| 1975 | 3,665 (100.0) | 2,884 (78.7) | 18.5 (0.5) | 762 (20.8) |
| 1980 | 2,892 (100.0) | 1,984 (68.6) | 19.8 (0.7) | 888 (30.7) |
| 1985 | 2,491 (100.0) | 1,768 (71.0) | 26.7 (1.1) | 696 (27.9) |
| 1990 | 1,653 (100.0) | 1,287 (77.8) | 12.8 (0.8) | 352 (21.2) |
| 1991 | 1,579 (100.0) | 1,249 (79.1) | 12.7 (0.8) | 317 (20.1) |
| 1993 | 1,490 (100.0) | 1,240 (83.2) | 11.0 (0.7) | 240 (16.1) |
| 1994 | 1,247 (100.0) | 1,146 (91.9) | 6.2 (0.5)  | 94 (7.5)   |
| 1995 | 1,378 (100.0) | 1,092 (79.2) | 5.9 (0.4)  | 280 (20.3) |

資料: 總務廳統計局, 「家計調査年報」, 各年度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園藝統計」, 1997. 4.

표 6 일본의 1인당 연간 과일 구입량

단위: kg

| 연 도   | 과실계  | 감귤   | 사과  | 포도   | 배    | 복숭아  | 감    |
|-------|------|------|-----|------|------|------|------|
| 1965  | 30.4 | 9.7  | 6.4 | 1.2  | 2.2  | 0.8  | 0.9  |
| 1970  | 40.2 | 13.7 | 6.0 | 1.1  | 2.7  | 1.1  | 0.9  |
| 1973  | 54.6 | 23.1 | 4.9 | 1.2  | 3.0  | 1.1  | 1.2  |
| 1975  | 49.7 | 20.0 | 4.5 | 1.3  | 2.7  | 1.0  | 0.9  |
| 1980  | 41.6 | 14.5 | 5.0 | 1.3  | 2.4  | 0.8  | 1.0  |
| 1985  | 36.4 | 9.6  | 4.6 | 1.4  | 2.3  | 0.7  | 1.1  |
| 1990  | 33.8 | 7.8  | 5.2 | 1.1  | 2.0  | 0.6  | 1.2  |
| 1995  | 32.0 | 6.3  | 5.2 | 1.0  | 1.9  | 0.6  | 1.0  |
| 1996  | 31.2 | 5.6  | 5.1 | 1.0  | 2.0  | 0.7  | 1.0  |
| 96/73 | -2.1 | -5.3 | 0.2 | -0.9 | -1.5 | -1.7 | -0.9 |

資料: 總務廳統計局, 「家計調査年報」, 各年度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園藝統計」, 1997. 4.

소비량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중 밀감의 소비량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과실 및 밀감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밀감과 밀감의 과실을 비교하면 밀감의 과실의 경우 오히려 1인당 순식품의 공급량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이같은 사실은 밀감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의 절대적인 감소량이 밀감의 과실의 연간 1인당 증가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밀감의 과실중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온대과실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밀감의 과실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열대과실과 감귤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 온대과실과의 소비대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주요 과실수입은 열대과실과 감귤류의 수입이 전체 과실수입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의 경우 열대과실과

표 7 과실류의 1인당 연간 순식품 공급량 추이

단위: kg(%)

| 연 도  | 과실계  | 감귤          | 기타과실        |
|------|------|-------------|-------------|
| 1965 | 28.5 | 7.3 (25.6)  | 21.2 (74.4) |
| 1970 | 38.1 | 13.8 (36.2) | 24.2 (63.8) |
| 1972 | 43.8 | 19.0 (43.3) | 24.8 (56.7) |
| 1975 | 42.5 | 19.0 (44.7) | 23.5 (55.3) |
| 1980 | 38.8 | 14.3 (36.9) | 24.5 (63.1) |
| 1985 | 36.8 | 11.6 (31.5) | 25.1 (68.5) |
| 1990 | 37.4 | 7.9 (21.1)  | 29.5 (78.9) |
| 1995 | 40.7 | 6.5 (16.0)  | 34.1 (84.0) |
| 1996 | 38.8 | 5.6 (14.4)  | 33.2 (85.6) |

주: ( )내는 전체 과실에 대한 비중임.

資料: 農林水産大臣官房調査課, 「食料需給表」, 各年度

감귤류 수입비중은 각각 60.6%와 33.1%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과실수입은 1961년에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바바나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실이 밀감생산량과 수요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입과실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품목인 바바나, 오렌지, 그레이프후루츠 등의 품목은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8).

앞으로 일본의 1인당 밀감 소비량은 지금까지와 같은 감소율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입과실

에 의해 밀감의 소비대체가 이루어져 왔으나 밀감은 일본인들에게 사과, 배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과실중의 하나이며, 또한 현재 일본 시장에 대한 과실수입의 자유화가 대부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실의 수입량과 소비량이 안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입과실에 의한 밀감소비의 대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5년 7월에 일본의 각의에서 통과된 과실 수요의 장기전망에서 2005년 일본의 1인당 밀감수요량은 6.4kg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8 일본의 과실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연 도  | 바나나     | 파인애플    | 아보카도<br>망고 | 레몬<br>라임 | 오렌지     | 자몽      | 과실계       |
|------|---------|---------|------------|----------|---------|---------|-----------|
| 1965 | 357,580 | 11,713  | 2          | 18,948   | 1,165   | 670     | 389,542   |
| 1970 | 843,891 | 35,366  | 16         | 54,044   | 4,313   | 2,265   | 940,887   |
| 1975 | 894,111 | 54,218  | 414        | 64,051   | 22,116  | 146,702 | 1,189,885 |
| 1980 | 726,086 | 105,013 | 1,695      | 100,691  | 71,403  | 135,213 | 1,158,977 |
| 1985 | 680,035 | 128,912 | 4,968      | 113,924  | 111,635 | 120,804 | 1,204,678 |
| 1990 | 757,521 | 128,250 | 7,313      | 103,884  | 145,188 | 156,656 | 1,404,773 |
| 1995 | 873,765 | 107,940 | 14,773     | 94,812   | 179,960 | 278,129 | 1,675,787 |
| 1997 | 885,140 | 96,087  | 14,639     | 89,423   | 171,269 | 283,773 | 1,643,991 |

資料: 日本貿易振興會,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 1997. 11.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園藝統計」, 1997. 4.

### 3.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1970년대 이후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은 공급과잉과 수요감소 현상에 따른 수급조정대책과 미·일의 오렌지 수입자유화 일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밀감산업의 재편대책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8년에는 미국과 일본간에 오렌지 수입자유화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밀감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1985년부터 5년간격으로 과수진흥계획목표치와 생산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10년 후의 전망치를 발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의 계획목표치는 250만톤이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180만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139만톤으로 책정하였다.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1975년 밀감생산량이 최고에 달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은 밀감과원의 타작목으로의 전환과 폐원사업, 품종개량과 고품질화, 감귤류의 소량다품목화, 생산출하의 주년화 등이었다. 제1차 전환대책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75년부터 197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온주밀감 과원개식 등 긴급대책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에 따라 밀감의 주산지현에서는 현사정을 고려하여 밀감과원 개식운동사업으로 품종갱신사업을 단행하였다(표 9).

제2차 전환대책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3만 ha의 과원전환 목표로 타작목이나 타품목으로 밀감과원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밀감의 각 주산지현에서는 밀감농가 경영합리화 촉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밀감과원의 전환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는 밀감의 하우스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극조생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전환대책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 동안 밀감산지재편 특별대책사업으로 과원전환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인 취지는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밀감산업을 타작물로 전환하는 사업이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 온주밀감의 타작물로의 과원전환사업을 위한 벌채, 벌근·정지, 토지개량, 식재, 고접 ② 생산시설 등 정비사업을 위한 소규모 토지기반 정비사업, 방제·관계시설사업 등이었다. 그리고 전환 목표면적은 3년간 1만ha(1984: 3,340ha, 1985: 3,340ha, 1986: 3,330ha)이며,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은 벌채, 벌근·정지, 토지개량, 식재는 사업비의 50% 이내를 보상하며, 고접의 경우 정액(10a당 20천엔)을 보상하였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현→시정촌→농협→생산자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작성, 주산지현은 사업추진의 감독, 시정촌은 거점지도, 농협은 사업주체가 되었다.

제4차 전환대책은 1987년에 밀감과원 전환정비특별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온주밀감 과원의 타작물로의 전환사업으로서 벌채, 벌근·정지, 토지개량, 식재, 고접사업 ② 생산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소

표 9 일본 밀감산업의 구조조정 정책과 내용

| 연 도  | 생산량<br>(천톤) | 판매가<br>(円/kg) | 구조조정 주요정책   | 과수진흥<br>계획목표                | 비 고                         |
|------|-------------|---------------|---|-----------------------------|-----------------------------|
| 1973 | 3,389       | 79            | 제1차 전환대책<br>(과원개식등 긴급대책사업)<br>주요내용: 품종갱신                        |                             | 최고생산량<br>(가격폭락)<br>가격폭락     |
| 1974 | 3,383       | 103           |   |                             |                             |
| 1975 | 3,665       | 92            |   |                             |                             |
| 1976 | 3,089       | 132           |   |                             |                             |
| 1977 | 3,539       | 109           |   |                             |                             |
| 1978 | 3,026       | 137           | 제2차 전환대책<br>(온주밀감원 전환대책사업)<br>주요내용 : 3만ha 감소목표<br>(가족경영합리화촉진사업) |                             | 하우스재배<br>극조생재배              |
| 1979 | 3,618       | 100           |   |                             |                             |
| 1980 | 2,892       | 130           |   |                             |                             |
| 1981 | 2,819       | 153           | 제3차 전환대책<br>(감류류산지재편정비특별<br>대책사업 1만ha/3년)                       | 과수진흥<br>계획목표<br>250만톤<br>책정 | 한발, 감수                      |
| 1982 | 2,864       | 111           |   |                             |                             |
| 1983 | 2,859       | 120           | 제4차 전환대책(과원전환)<br>제5차과원재편대책사업<br>미·일 교섭합의<br>(4만ha 감소 및 과원전환)   |                             | 공급과잉                        |
| 1984 | 2,008       | 213           |   |                             |                             |
| 1985 | 2,491       | 158           | 오렌지수입자유화<br>오렌지과즙수입자유화  | 과수진흥<br>계획목표<br>180만톤<br>책정 | 태풍, 구주감수                    |
| 1986 | 2,158       | 157           |   |                             |                             |
| 1987 | 2,518       | 116           | 과수진흥<br>계획목표<br>219만톤<br>책정                                     |                             | 냉해, 다우<br>한발, 고품질<br>2년연속한발 |
| 1988 | 2,011       | 146           |   |                             |                             |
| 1989 | 2,015       | 167           | 과수진흥<br>계획목표<br>139만톤   |                             |                             |
| 1990 | 1,653       | 213           |   |                             |                             |
| 1991 | 1,579       | 254           |   |                             |                             |
| 1992 | 1,683       | 187           |   |                             |                             |
| 1993 | 1,490       | 171           |   |                             |                             |
| 1994 | 1,246       | 287           |   |                             |                             |
| 1995 | 1,378       | 218           |   |                             |                             |
| 1996 | 1,370       | 300           |   |                             |                             |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園藝統計」, 1997. 3.  
日本 和歌山縣, 「果樹関連データブック」, 1994. 3.

규모 토지 기반정비사업, 방제·관계시설사 1991년까지 5년 동안 매년마다 2,200ha를 전  
업 ③ 유통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집출하시설, 환하여 총 1.1만ha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관련 부대시설 밀감과원의 전환사업에는 밀감나무의 수령에  
사업 등이었다. 전환목표면적은 1987년부터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표 10).

표 10 제4차 전환사업의 보상내역

단위: 천円/10a

| 사 업 명 | 10년생 이하 | 11~20년생 | 21~40년생 | 41년생 이상 |
|-------|---------|---------|---------|---------|
| 伐 採   | 39      | 36      | 47      | 55      |
| 伐根·整地 | 50      | 46      | 62      | 70      |
| 苗木    | 40      | 40      | 40      | 40      |
| 土地改良材 | 23      | 23      | 23      | 23      |
| 植 栽   | 43      | 43      | 43      | 43      |
| 小計    | 195     | 188     | 215     | 231     |
| 高 接   | 2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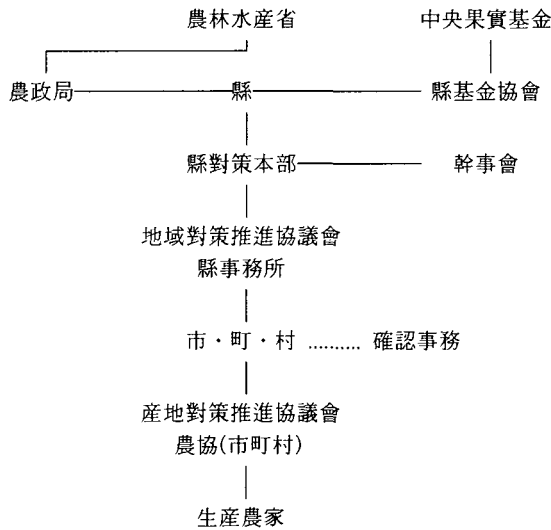


표 11 제5차 전환대책 보상내역

단위: 천円/10a

| 구 분           |       | 수령20년생이하 | 수령21년생이상 |
|---------------|-------|----------|----------|
| 타과수로의 전환      |       | 180      |          |
| 타작물로의 전환      |       | 100      |          |
| 식목<br>및<br>폐원 | 1989  | 360      | 330      |
|               | 1990  | 310      | 280      |
|               | 1991  | 260      | 230      |
|               | 계획미수립 | 100      | 100      |

그림 1 제5차 전환사업 추진체계



제5차 밀감산지 재편정비 특별대책사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밀감전환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요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간의 오렌지 및 오렌지과즙의 수입자유화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전국각적인 차원에서 밀감산지의 재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밀감과원의 전환사업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이루어졌으며, 과원전환의 계획목표치가 당초 2.2만 ha였으나 이 기간중 약 4만 ha의 과원이 감소되었다. 밀감산지 재편정비 특별사업의 보상금액

은 크게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보상, 타과수로의 전환에 대한 보상, 식목 및 폐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재원은 중앙과실기금에서 조달되었다(표 11). 사업의 추진체계는 농림수산성의 농정국이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현단위에서는 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각 지역별로 지역대책추진협의회 현사무소가 설치되고 산지에서는 농협주도 산지대책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그림 1).

다섯차례에 걸친 일본 밀감산업의 구조조정 결과 지속적인 과원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품질의 고급화, 생산·출하의 주년

그림 2 일본의 감귤류 생산·출하의 주년화 형태

|       |   |     |   |       |   |   |   |     |           |    |    |
|-------|---|-----|---|-------|---|---|---|-----|-----------|----|----|
| 1월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만생종밀감 |   | 만감류 |   | 하우스밀감 |   |   |   | 극조생 | 중생-----조생 |    |    |

화가 이루어졌다. 감귤류의 고품질화는 주산지의 원예시험장 등에서 밀감 우량품종의 개발, 신품종의 육성 및 재배시험 등으로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와카야마현의 아지이찌(味一)품종이다. 고품질화의 주요 내용은 1980년대 초반부터 재배관리와 품종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으며,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아지이찌같은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은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味一의 경우 당도가 12~13도 이상, 산도 1도 이하의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 품종은 10월상순 포장에서 당도검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선과장에서 당도 및 산도검사를 실시하여 당도가 11.5도 이하로 나타날 경우 아지이찌 품종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완숙밀감으로 출하된다. 현재 일본 원예시험장에서의 밀감 품종개량의 방향은 일본 소비자의 입맛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는 당도 12~13도, 산도 0.8~1.0도 정도의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결과 일본 감귤류 생산·출하의 주년화는 온주밀감 위주의 품종에서 하우스밀감, 극조생, 만감류 등의 재배가 적정비율로 전환되어 생산 및 출하가 소량 다품종 형태로 주년화된 것이다(그림 2). 그러나 감귤류 생산·출하 주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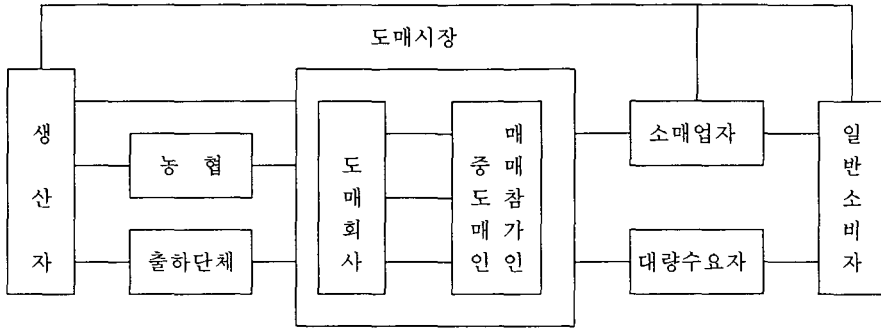
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4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고당도의 하우스밀감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가 9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극조생 온주밀감의 경우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온주밀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다.

#### 4. 일본의 감귤유통

일본의 감귤 유통단계는 크게 생산단계, 집출하단계, 도매단계, 중간도매단계, 소매단계, 소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감귤 유통경로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산지 집출하단계에서 농협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며, 도매단계에서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시장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다. 감귤의 가장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농협(農協選果場)→도매시장(도매회사→중도매인)→소매업자(대량수요자)→소비자의 경로이다. 그 외 산지의 집출하단계에서 생산자→출하단체→도매시장 경로, 생산자→도매시장 경로, 생산자→소비자의 직거래 경로 등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생산자의 출하경로별 출하비중은 농협출하 비중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출하

그림 3 일본 감귤의 유통경로



단체 15%, 도매시장 직접출하 15%,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협 선과장에서 선별·포장을 거쳐 도매시장 출하는 단순히 공동수송 수준이 아니고 철저한 공동계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까지의 운송은 일반적으로 농협이 운송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과장까지 개별적으로 수송된 생산자의 감귤은 선과장에서 선별·등급·포장하는 과정에서 농협 브랜드가 부착된 단일의 상품화가 이루어진다.

출하단체는 일부 개별출하자가 조직한 임의단체로서 그들의 공동선과장에서 선과하여 도매시장에 공동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대체로 전업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매시장 직접출하는 일부 대농이나 전업농들이 개인 선과장에서 선과하고 포장한 후 개별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이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직거래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 형태로 그 비중은 전체의 약 10% 미만이다.

도매단계와 중간도매단계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유통기구는 도매회사인 卸賣業者와

중간도매업자인 仲卸業者이며, 그 외 대량수요자, 가공업자, 소매업자와 같은 매매참가인들이 있다. 매매참가인들은 도매시장의 경매에 참여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직접 구입하는 사람이다.

개별생산자, 농협, 출하단체 등으로부터 도매시장의 도매회사에 상장된 감귤은 크게 경매(Auction Sales), 상대거래(Negotiated Transaction), 예약상대거래(Reserved Negotiated Transaction) 등 3가지의 거래방법에 의해 도매회사에서 중도매인이나 매참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감귤류의 도매시장내 거래에서 거래방법별 각각의 비중은 경매 약 30%, 상대거래 약 65% 이상 수준, 예약상대거래인 약 5% 미만이다. 그러나 경매의 비중이 점감하고 상대거래나 예약상대거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도매단계에서 경매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거래나 예약상대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매단계의 유통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매단계에서 점포형태가 대형 슈퍼마켓, 양판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소매기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규모화, 체인화되고 있으며, 이들 대형 소매점들의 상품 구매형태가 경매에

의해 구매시간이 제약을 받는 경우보다는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도매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대매매나 예약상대거래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선과장에서의 선별과 등급화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급화된 표준규격품이 아니면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없다. 선과장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농협선과장으로 산지 선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지 농협선과장 1개소의 규모는 대체로 연간 취급규모가 3,000톤에서 1만톤 정도까지 다양하다. 선과장내에서의 유통비용은 선과수수료, 포장재비, 도매시장까지의 운송비 등이 있으며, 대체로 농협선과장의 경우 선과수수료는 포장재비(10kg)를 포함하여 평균 kg당 36円 정도다. 선과장내에서의 작업은 선과장에서 인원을 고용하여 수수료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는 판매액의 7% 수준으로 포장재비를 포함한 선과장비용과 상장수수료 등 총유통비용이 10kg당

약 45~50円 수준으로 대체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약 30% 정도가 된다.

농협선과장의 경우 개별생산자가 선과장까지 감귤을 운송하면 선과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급화를 위해 당도와 산도검사를 받는다. 개별생산자들의 상품에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도나 산도검사시 조합직원이 생산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일련의 번호는 선과와 포장이 끝난 후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등급별 가격이 결정되면 조합에서 공동으로 계산하게 된다. 등급은 대체로 秀, 優, 良, 普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당도와 산도의 함량, 색택의 균일성, 외상여부, 병충해여부, 고풍 등이다. 당도와 산도검사는 개별생산자가 가져온 감귤중 표본을 추출(1개/110kg 콘테이너, 1개/900kg 콘테이너)하여 조합직원이 검사기를 통해 검사한다. 당도와 산도의 기준이나 기타 각각의 등급결정 기준

표 12 감귤의 품위 및 크기 기준

| 구 분             |              | 秀               | 優                | 良              |                |                |        |
|-----------------|--------------|-----------------|------------------|----------------|----------------|----------------|--------|
| 품위기준            | 크기균일성        | 크기가 균일한 것       | 좌동               | 좌동             |                |                |        |
|                 | 중결점과 경결점과 형상 | 혼입안된 것          | 좌동               | 좌동             |                |                |        |
| 태양광피해 병충해 상해 淨皮 | 태양광피해        | 혼입안된 것          | 거의 혼입안된 것        | 현저히 혼입안된 것     |                |                |        |
|                 | 병충해          | 뛰어난 것           | 우량한 것            | 우의 다음 것        |                |                |        |
|                 | 상해           | 피해없는 것          | 좌동               | 심하지 않은 것       |                |                |        |
|                 | 淨皮           | 피해없는 것          | 경미한 것            | 심하지 않은 것       |                |                |        |
|                 |              | 상처, 약해없는 것      | 경미한 것            | 심하지 않은 것       |                |                |        |
|                 |              | 인정되지 않는 것       | 경미한 것            | 심하지 않은 것       |                |                |        |
| 크기기준 (직경mm)     | 품 종 (규격)     | 온주밀감 (10, 15kg) | 네블오렌지 (10, 15kg) | 감하귤 (10, 15kg) | 이예감 (10, 15kg) | 햇사꾸 (10, 15kg) |        |
|                 |              | 3L              | 80이상             | 88이상           | 109이상          | 95이상           | 102이상  |
|                 |              | LL              | 73~80            | 80~88          | 102~109        | 88~95          | 95~102 |
|                 |              | L               | 67~73            | 73~80          | 95~102         | 80~88          | 88~95  |
|                 |              | M               | 61~67            | 67~73          | 88~95          | 73~80          | 80~88  |
|                 |              | S               | 55~61            | 61~67          | 80~88          | 67~73          | 73~80  |

에 의해 점수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크기에 의한 규격은 대체로 3L, LL, L, M, S 등 5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나 주산지에 따라서는 LL, L, M, S 등 4가지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러한 크기 구분은 감귤의 품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표 12).

### 5. 일본의 감귤무역

일본의 밀감수출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약 20,000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1983년 25,000톤 수준으로 가장 높은 실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3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1995년에는 5,913톤 수준으로 1983년의 23.2%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온주밀감 수출량의 급감추세는 밀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밀감의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국내 밀감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밀감수출은 밀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 감귤산업의 성장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요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처리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밀감수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시장개척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시장개척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 밀감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미지역 특히 캐나다가 중심시장이다. 1980년대까지 일본 밀감의 주요 수출시장은 캐나다와 한국으로 전체 수출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미국과 북한이 약 7%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한 밀감수출이 없어짐에 따라 캐나다가 전체 수출물량의 약 90%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13). 북미지역 중 캐나다 수출감귤의 주요 산지는 시즈오가현, 카나가와현, 도쿠시마현, 사가현이며, 미국 수출감귤의 경우 미국의 식물검역법상 시즈오가현, 아이치현의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 밀감의 북미지역에 대한 밀감수출은

표 13 일본 밀감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톤

| 연 도  | 한국    | 북한    | 캐나다    | 미국    | 기타    | 계       |
|------|-------|-------|--------|-------|-------|---------|
| 1980 | 2,628 | 174   | 14,256 | 999   | 71    | 18,128  |
| 1985 | 5,339 | 274   | 17,826 | 1,531 | 170   | 25,139  |
| 1988 | 7,971 | 611   | 13,446 | 1,225 | 103   | 23,356  |
| 1990 | 645   | 556   | 11,059 | 1,004 | 110   | 13,374  |
| 1993 | -     | 180   | 9,661  | 789   | 415   | 11,045  |
| 1995 | -     | 192   | 5,358  | 231   | 132   | 5,913   |
|      |       | (3.2) | (90.6) | (3.9) | (2.3) | (100.0) |

주: ( )내는 총수출물량에 대한 국가별 구성비임.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果樹生産出荷統計」, 1997. 2.

표 14 일본 신선감귤류의 수입 추이

단위: 톤

| 연 도  | 오렌지     | 그레이프후루츠 | 레몬·라임   | 기타감귤류 <sup>1)</sup> |
|------|---------|---------|---------|---------------------|
| 1965 | 1,165   | 670     | 18,948  | 693                 |
| 1970 | 4,313   | 2,265   | 54,044  |                     |
| 1975 | 22,116  | 146,702 | 64,051  | 683                 |
| 1980 | 71,403  | 135,213 | 100,691 | 411                 |
| 1985 | 111,635 | 120,804 | 113,924 | 336                 |
| 1990 | 145,188 | 156,656 | 103,884 | 290                 |
| 1995 | 179,960 | 278,129 | 94,812  | 6,940               |
| 1997 | 171,269 | 283,773 | 89,423  | -                   |

주: 1) 만다린, 온주밀감, 클레멘타인 등이 포함됨.

資料: 日本 農林水産省情報統計部, 「果樹生産出荷統計」, 1997. 2.

크리스마스 오렌지 형태로 1980년대까지는 비교적 안정되게 정착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국내 생산량의 감소추세와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앞으로 일본 밀감의 수출전망은 국내수급동향 및 국내가격동향, 환율추이, 수출대상국의 식물검역상 조건 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감귤류 수입은 크게 오렌지, 자몽, 레몬·라임, 기타 감귤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네이블오렌지가 재배되고 있으나 1996년말 재배면적은 2,100ha로서 1984년 5,060ha를 정점으로 온주밀감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생산량은 1995년말 26,100톤으로 수요량에 비해 절대로 부족하다. 오렌지의 수입은 주로 미국, 호주, 남아공화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표 14).

1997년말 일본의 오렌지 수입량은 171,269톤으로 1994년 190,376톤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다. 일본의 오렌지 수입 자유화는 1991년 4월에 이루어졌으나 1980년

대부터 오렌지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밀감산지의 전국적인 재편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크지 못하였다. 다만 1992년의 오렌지 수입량은 1991년의 82,017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77,701톤으로 급증하였으나, 이것은 1990년 12월 미국 오렌지 주산지의 한파에 의한 생산량의 감소로 1991년의 수입량이 약 44%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입오렌지의 경우 겨울철에는 대부분 네부루오렌지이며, 여름철에는 바렌샤오렌지이다.

일본의 감귤류 수입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 감귤류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의 오렌지 수출량의 약 30%, 그레이프후루츠 수출량의 약 50%, 레몬·라임 수출량의 약 66%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4년부터 하우스밀감을 중심으로 약간 수출되고 있다. 자몽(그레이프후루츠)은 일본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주로 미국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및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971년

표 15 일본의 국가별 감귤류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달러

| 구 분   | 1993    | 1994    | 1995            |                 |
|-------|---------|---------|-----------------|-----------------|
|       |         |         | 물 량             | 금 액             |
| 오렌지   | 165,420 | 190,376 | 179,960 (100.0) | 191,329 (100.0) |
| 미국    | 155,728 | 182,517 | 169,579 (94.2)  | 179,460 (93.8)  |
| 자몽    | 237,489 | 284,965 | 278,129 (100.0) | 277,632 (100.0) |
| 미국    | 224,388 | 262,735 | 243,181 (87.4)  | 231,763 (83.5)  |
| 레몬·라임 | 89,276  | 90,322  | 94,812 (100.0)  | 144,473 (100.0) |
| 미국    | -       | 85,018  | 87,840 (92.6)   | 129,101 (89.4)  |
| 기타감귤류 | 1,595   | 7,603   | 6,941 (100.0)   | 11,590 (100)    |
| 계     | 493,780 | 573,266 | 559,842         | 625,024         |

資料: 日本貿易振興會,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 1996. 10.

사과, 포도와 함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말 현재 총수입량이 283,773톤에 이른다. 레몬·라임의 수입은 1964년 수입자유화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 128,184톤으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1995년에는 94,812톤이었다(표 15).

## 6. 국내 감귤산업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의 감귤산업은 197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감귤산업은 현재 수요증가의 둔화추세와 오렌지의 수입자유화 및 국내생산 잠재력의 확대 등으로 생산·공급면에서 과잉생산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국내 감귤산업은 1975년 감귤생산량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1973년 이후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오렌지의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감귤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해소

하고 오렌지 수입자유화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시한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정책과 유통체계의 분석은 국내 감귤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모색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의 특성은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조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있었다. 5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대상면적이나 목표 등 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은 일본에서의 감귤생산이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의 20개 이상의 현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귤이 농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원전환 사업 등에 대한 보상을 현실적 수준으로 실시함으로써 구조조정 대상농가와 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대부분 구조조정의 계획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둘째, 구조조정의 계획과 목표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산지에서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주체는 철저히 농협을 중심으로한 생산자단체였다. 농림수산성이 사업방향을 계획하고, 현단위에서는 현대책본부가 설치되었으나, 농가단위에서는 농협이 산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가 사업의 중심주체가 됨으로써 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다.

셋째, 다섯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의 내용은 폐원사업, 타작목으로의 전환사업, 품종갱신사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생산시설 정비사업, 토지개량사업, 생산량감축사업, 유통시설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폐원 및 전환사업과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고급화 및 품종갱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품종별로 적정비율로 재배치됨으로써 생산·출하의 주년화가 이루어졌다.

넷째, 구조조정 정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과를 증대시켰다. 1970년대 중반 감귤산업이 과잉공급구조로 전환되면서 수급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이 바로 추진되었다. 또한 1991년 오렌지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3년 전부터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과원면적 축소 및 전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오렌지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져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다섯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뿐만 아니라 감귤의 산지유통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주도적인 유통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감귤의 약 70% 정도가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되고 있으나 농협선과장에서 개별적으로 선별·포장되어 출하되는 단순한 공동수송 단계가 아니고 철저한 공동계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의 산지유통은 농협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통(Orderly Marketing)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감귤수출에서도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감귤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수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출량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국내 감귤산업은 현재의 감귤산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급과잉구조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감귤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내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감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감귤산업이 공급과잉구조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의 초점을 일본처럼 과원면적을 축소시키는 폐원사업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은 공급측면, 수요측면, 경쟁력제고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공급측면의 경우 재배면적 및 신규조원면적의 조절, 생산조절, 출하조절정책 등이 있으며, 수요측면의 경우 신수요 개발, 수출시장 개척, 신상품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쟁력제고 측면의 경우 품종갱신과 품질고급화, 생산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들은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것 보다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은 개별생산자나 생산



자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섯차례의 감귤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목표 및 방향설정의 추진주체가 되고 지방정부, 시험연구소, 생산자단체, 생산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기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추진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귤생산은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사업의 프로그램을 농가에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체계있게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추진주체는 일본에서와 같이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국내 감귤산업에서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추진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을 체계화시키는 기본단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국내 감귤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일본에서와 같이 협동조합이 생산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을 체계화하여 산지에서 수급을 조절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키는 중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공급, 수요, 경쟁력제고 등의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시험연구소, 수출업체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련하에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국내 감귤산업의 구조조정이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품질고급화를 통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의 개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지용. 1994. 11. “오렌지 수입개방에 따른 일본 감귤산업의 변화와 대응,” 「제주의 농업과 경제」 창간호.
- USDA ERS. 1997. 3.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 麻野尙延. 1989. “市場開放に對する柑橘生産地域の對應,” 「農業經濟研究」第61卷 第3号.
- . 1995. “果汁輸入自由化と國內柑橘産業の動向,” 「農業市場研究」第3卷 第2号.
- 日本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7. 3. 「ポケット園藝統計」, 平成8年度版.
- . 1997. 2. 「果樹生産出荷統計」.
- 日本貿易振興會. 1996. 10.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
- 日本 果實流通研究會. 1992. 12. 「果實の流通便覽」.
- 日本 總務廳統計局. 各年度. 「家計調査年報」.
- 和歌山縣廳. 1994. 3. 「果樹關連データブック」.